



그룹 방탄소년단이 메가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에 이어 두 번째 영어 노래 '버터'(Butter)를 21일 선보이자마자 전 세계적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들이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글로벌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즈를 취한 모습.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BTS 신곡 '버터', 빌보드 핫100 1위 예감

- 1 뮤비 공개 21시간만에 1억뷰 돌파
- 2 101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
- 3 로이티 "버터"로 그래미상 도전 재개

"빌보드 '핫100' 1위? 꼭 해내겠다. 그래미도 도전 계속된다."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8개월 만에 내놓은 신곡 '버터'의 신드롬이 시작됐다. 전작 '다이너마이트'의 열풍이 채 가시기도 전인 21일 발표한 신곡에 전 세계 팬덤이

들썩었다. 이날 오후 1시(이하 한국시간) 전 세계 동시 공개한 '버터'의 경쾌하고 신나는 멜로디와 영어 가사로 세계 음악시장을 겨냥한 만큼 성과도 즉각적이다. 외신들은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 1위는 물론 24일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 5년 연속 수상까지 예측했다.

●신기록 행진... '다이너마이트'보다 빠른 인기
'버터'의 뮤직비디오는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폭발적이다. 23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유튜브 공개 21시간

만인 22일 오전 9시56분 1억뷰를 넘어서며 '다이너마이트' 기록보다 3시간을 앞당겼다. 24시간 최대 조회수인 1억 820만건에 공개 첫날 최대 동시 접속자 390만명으로, '다이너마이트'의 300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 유튜브 프리미어 뮤직비디오 시청 기록까지 썼다.

음원의 기세도 마찬가지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호주 등 101개 국가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에 올랐고, 국내 음원 차트에서도 정상을 차지했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1위
ABC 공인 유료 '발명부수'
3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1년 5월 24일 월요일
www.sportsdonga.com

6개 대회서 벌써 3승...KLPGA는 '박민지 천하'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결승서 박주영 꺾고 '통산 7승'

15번 홀 8m 버디 후 3&1 승리 완성
NH투자증권 오픈 이어 2주 연속 우승
대상 포인트·누적 상금 모두 1위 질주
박민지 "코스서 죽겠다는 각오로 쳤죠"
첫 승 노린 박주영, 228번째 대회 2위



6개 대회에서 벌써 3승을 챙겼다. 대상 포인트(170점), 상금(4억 8604만7500원) 모두 1위. 2021시즌 초반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는 그야말로 '박민지(23·NH투자증권) 천하'다. 박민지가 23일 강원 춘천시 라테나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2021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총상금 8억원) 박주영(31·동부건설)과의 결승전에서 3&1 승리를 거두고 챔피언에 올랐다. 4월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에서 시즌 첫 승을 올린 뒤 지난 주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오픈에서 시즌 2승을 달성했던 박민지는 2주 연속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상금 2억 원을 품에 안았다. 올 시즌에만 벌써 3승을 수확해 시즌 누적 상금 5억 원에 성큼 다가서며 통산 7승에 입맞추었다. KLPGA 투어에서 2개 대회 연속 우승은 2017년 6월 S-Oil 챔피언십과 한국여자오픈에서 잇달아 패권을 차지했던 김지현(30·한화큐셀)에 이어 약 4년 만이다. 이날 오전 열린 4강전에서 지한솔(25·동부건설)을 2홀 차로 따돌리고 올라온 박민지는 준결승에서 정연주(29·대방건설)를 연장(19홀) 승부 끝에 가까스로 제친 박주영과 명승부를 연출했다. 나란히 조별리그 3경

기와 16강·8강·4강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며 6전 전승을 거둔 둘의 맞대결답게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다. 박민지가 2번(파5) 홀에서 버디로 앞서 나가자 박주영은 곧바로 3번(파3) 홀 버디로 응수했다. 박민지가 5번(파4) 홀과 7번(파3) 홀에서 잇달아 버디를 잡으며 모두 파에 그친 박주영을 제치고 2홀 차로 앞서 주도권을 잡았지만, 박주영은 10번(파4), 12번(파5) 홀에서 각각 버디로 파에 그친 박민지를 따돌리고 다시 균형을 맞췄다. 13번(파3) 홀에서 박민지가 4m 버디 퍼트를 떨구며 다시 1홀 차로 앞서가자, 14번(파4) 홀에선 파 세이브에 성공한 박주영이 보기에 그친 박민지에 승리를 거두며 다시 승부는 원점이 됐다.

승부처가 된 홀은 15번(파4) 홀. 박주영이 컨시드 파로 먼저 홀 아웃한 가운데 박민지는 약 8m 버디 퍼트를 홀컵에 떨어뜨리며 재차 1홀 차로 앞서갔다. 분위기를 탄 박민지는 16번(파3), 17번(파4) 홀에서 잇달아 승리를 거두며 결국 3홀을 앞서 18번 홀 플레이없이 3&1 승리를 완성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동 중인 박희영(34·이수그룹)의 동생인 박주영은 2010년 KLPGA A 투어 데뷔 이후 통산 228번째 대회에서 첫 승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정상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준우승 상금은 9200만 원. 3·4위전에서는 지한솔이 2&1 승리를 거두고 3위에 올랐다.

5일간 7라운드를 펼치는 강행군 속에서 '매치 퀸'에 오른 박민지는 "7경기만 이기면 우승한다는 생각으로 대회에 임했다"면서 "마지막 결승에서는 '코스 안에서 죽자'라는 각오로 쳤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2면

춘천 |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 '꽃잎 속의 매치퀸'. 6개 대회에 출전해 3개 대회 우승, 승률 50%로 '박민지 천하'를 일으켰다. 23일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우승이 확정되자 축하 꽃잎 세례를 받으며 기뻐하는 박민지. 사진제공 | KLPGA



CJ CHEILJEDANG



미네랄2종
(아연/구리)

비타민4종
(A/C/E/베타카로틴)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추출물

중장년의 침침하고 흐린 눈엔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

눈의 중심부인 황반의 구성 성분 '루테인'과 '지아잔틴'

수정체를 통해 들어온 빛이 상으로 맺히는 부분인 황반은 사상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눈의 중심 부분입니다. 황반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색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화로 인해 황반을 구성하는 색소밀도가 감소하면 눈이 침침해지고 흐려지게 됩니다. 중장년의 눈 건강, '루테인·지아잔틴 복합추출물'로 챙기십시오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눈 건강기능식품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눈 건강기능식품인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는 식약처 1일 권장섭취량(20mg)을 충족하는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어 노화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시켜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캡슐로 눈 건강과 기초 영양까지 케어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 뿐 아니라 기초 영양 케어를 위해 1일 권장량을 100% 충족시키는 비타민 4종(A, C, E, 베타카로틴)과 미네랄 2종(구리,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6개월분 구매 시
정상가대비 41% 할인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330-9988